



프랑스의 문화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정보신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팀

I. 서론

1970년대부터 입안되어 실행되어온 프랑스 국토개발 정책은 국가경제개발을 계획화하고 지방 대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근대화와 도시화를 달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정책은 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의 협약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구체적인 예로써,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사이에 247개의 도시 계약(Contrats de ville)이 체결되었으며 이 계약들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들의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도시 건축과 도시화에 관련된 문화, 예술 개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도시개발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문화발전 분야는 시급성, 경제적인 효과 및 예산 상의 문제 등으로 차선 순위로 밀려왔었다. 그러나 2000년 6월 19일 공표된 조례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체결된 도시계

약에는 문화발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례는 지방 도시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분야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의 관계를 수정, 즉, 지방자치정부가 문화발전을 담당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전통적인 중앙정부의 임무인 도시개발, 즉 주택개발과 경제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도시문화 개발의 민주화는 도시형 문화, 거리 문화, 현실 음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 문화를 창조했으며, 공공 도서관의 확충, 문화자료 및 미술관의 시민개방, 도시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시민참여, 문화 및 예술교육의 확충 등 문화에 관한 사회 계층 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에 열거된 문화관련 정책 및 예술교육에 의해 실행된 문화의 민주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문화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문화 및 예술활동의 혜택에서 배제된 문화 소외 계층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화부는 공연, 시

청각 미디어 및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방정부는 소외 계층의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성의 민주화, 즉 입장료 혜택, 접근이 용이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활동의 개발 등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따라서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각 지방 도시는 전통문화유산, 도시 건축 및 도시화에 관한 지식 및 자료를 보존·유지하며, 다양한 직업 계층과 사회 계층의 문화 및 예술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며,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을 실행할 경우 문화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경제개발에 따른 균등한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한편, 위와 같은 지방도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1) 지방도시 문화 발전에 관한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고찰 및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조건의 제공
- 2) 문화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제공
- 3) 도시 건축과 도시화의 질적 향상의 감독
- 4) 이민 계층에 대한 프랑스 전통문화 및 예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관리
- 5) 각 지방도시간의 문화활동 교환 프로그램의 보장

상기한 프랑스 지방자치정부의 문화도시 개발을 위한 정책을 살펴 보기 위해 프랑스 문화부가 제안한 문화도시 개발 계획을 위한 기본 원칙, 계획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분 파트너, 지금까지 실행되어온 문화개발 정책, 그리고 지방

자치정부의 예로써 프랑스 지방도시 중의 하나인 리옹(Lyon)시가 체결한 도시계약에 포함된 문화 개발 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문화도시 개발 계획

1. 개발 계획의 원칙

각 지방자치정부가 추구하는 문화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위해 프랑스 문화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용이한 문화도시 개발을 유도한다.

(1) 사회적·지리적 고려

각 지역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특성에 나타나는 사회 계층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

(2) 맞춤형 계획

각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 구성 및 지리적 조건(문화활동 지역과 도심 간의 거리 등)과 문화 활동의 기간을 고려한다.

(3) 지역의 문화에 연결된 특수성을 고려.

문화 활동의 성격을 고려한다. 즉, 문화 활동의 형태(노천 공연 또는 전시), 장소(미술관, 도서관 또는 공공 건물)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투자액 및 기간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각 문화 활동의 법적 측면에 주의하는데, 저작권 문제, 특히 영상물 제작이나 추모물의 제작의 경우 개인의 영상권 보호 및 사생활권 보호,



공연이나 영상물 제작의 경우 미성년 출연자의 보호 및 활동 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주의한다.

(4) 예술 교육

도시 개발 계획에 상응하는 예술교육을 이행하며, 이 경우 공교육에 포함시키거나 학교 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며 각 도시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5) 계획의 정의

계획의 준비 과정에 필요한 활동 외에도 해당 문화 활동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행하고자 하는 문화 활동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약의 존재 여부
- 문화 활동의 목적(학교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또는 참여 프로그램) 및 형태(도서관 설립 또는 미디어관의 설립)의 구체화
- 문화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
- 도시계약에서 문화분야가 차지하는 위치
- 문화 활동의 대상(일반인 또는 특정 계층)
- 도시내 여타 문화활동의 중복성 여부

(6) 계획의 적합성

모든 문화계획은 사회적 파트너, 즉 문화 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회 계층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의 문화 활동의 경우, 이러한 활동이 그 지역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낼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약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주민의 이해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다. 대상 관객의 호응을 받는 문화 활동의 경우 그 지역에 낯선 문화활동을 제공하더라도 지역 인구의 또 다른 문화에의 적응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요소를 무시한 강제적인 문화 활동의 경우 지역 인구의 거부감은 물론 장래의 문화 활동의 가능성까지 막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나 목적의 문화 활동이더라도 사회 계층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적응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행해진 문화 활동 이후에도 지방정부는 그 문화 활동이 도시 구성 요소, 즉 주민 및 기타 도시에서 행해지는 사회 활동에 끼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우선 문화 활동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전문 예술가 또는 일반인)이 문화 활동 이후 각자의 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하며, 문화 활동의 결과가 해당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관한 통계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보조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성과에 끼친 영향 등). 결국 문화 활동의 초안 단계부터 해당 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차후의 지속적인 문화 활동을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맹자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활동의 대상자들이 상기 프로그램에서 획득한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입안이 필요하다.

2. 계획의 파트너

프랑스 문화도시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로는 크게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공공 분야

우선, 각 도시의 문화계획 담당자가 도시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문화개발계획을 담당한다. 때로는 도시개발 계획에 문화정책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시 행정의 정점에 위치한 시장이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을 내리며 도시계약의 범주에 드는 문화개발 분야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한다.

국가적인 문화개발계획의 경우 도지사, 군수 등이 그 계획의 구체화를 담당한다. 해당 문화 활동이 어느 지역에 적합하며, 어떤 문화 활동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다른 문화 활동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또한 이들은 유럽문화기금의 집행을 담당하는데 다양한 문화개발계획이 상충할 경우 중앙정부의 문화부에서 제의하는 각 문화개발계획의 우선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배분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사이의 협조 위원회를 창설하기도 한다.

각 지방 도지사 감독하에 위치한 지방문화국(DRAC :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은 국가 문화개발정책을 위한 “문화의 축”(pôle culture)을 창설하여 각 지방자치정부가 국가 문화개발정책에 쉽게 접근하여 많은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정부는 지방문화국의 협조를 받아 도시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개발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문화개발계획의 일원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문화 감독국은 전통 유산, 건축, 순수 및 응용 미술, 도서 및 독서, 공연 등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존재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도 존재한다. 지방문화 감독국에는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원활한 지방문화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존재한다.

그밖에 청년체육부, 교육부 및 법무부의 경우에도 문화도시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조직이 존재한다.

한편 유럽연합 차원의 문화도시 개발 지원 정책으로는 문화 프로그램의 교환(Culture 2000)을 통한 “공통 문화”(Culture cummune)정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정책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차원에서 실행하는 유럽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완성을 목표로 하며, 후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맹국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되 문화 개발을 사회계층의 단결과 사회적 차별의 소멸을 위한 주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

(2) 민간 분야

민간 분야의 문화 지원금은 문화부 연간 예산의 8%를 차지한다. 이 기금은 기업 지원금과 민



간 기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 지원금은 상공업메세나추진협의회(ADMICAC ; 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u Mécénat Industriel et Commercial)라는 협회를 통해 활성화되며, 민간 기부금의 경우 프랑스 재단(Fondation de France)이라는 기구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II. 문화도시 개발계획의 역사

프랑스는 1970년대 초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정부인 각 도시의 문화개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그 중 문화도시 개발에 중요한 지표를 이루는 정책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971년

- 문화 활동의 형태를 고려하고 제안하며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개발위원회와 실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활동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문화 창작인의 사회 활동과 개인의 표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지원기금의 창설

- 1975년

- 문화부와 지방자치정부 간의 문화현장 조인

- 1977년

- 지방문화국(Direction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창설

- 1982년

- 예술 연수, 교육 및 참여와 문화활동의 최적의 분배와 접근을 용이하게 위한 문화개발 협약에 관한 조례 공포

- 1983년

- “1 시장, 1명의 건축가”라는 모토로 국가적 계획인 “교외 89”(Banlieues 89)시작, 1989년에 116개의 계획 달성

- 1990년

- 청소년 층의 예술 표현 행위 및 만남의 장소인 “cafés-musique” 프로그램 시행

- 1991년

- 유럽 차원에서 예술, 문화 활동 경험을 교환하는 협회인 “Banlieues d’Europe” 창설
- “한 여름의 영화(Un été au ciné)” 프로그램 시행
- 공공 장소에서의 현대미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미술협약(15개 시)프로그램 시행
- 400개의 문화, 예술 관련물을 각 도시 구역에서 상영하는 “빛 동네”(Quartiers lumières) 프로그램 시행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시 지역의 스포츠, 오락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열린 학교” 프로그램 시행

- 1994년

- 문화부 내에 건축 감독국 설립

-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한 지방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문화 계획”(Projets culturels des quartiers) 시행
- 도시계획에서 발생하는 도시 건축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 도시 및 사회적 역동”(Cultures, villes et dynamiques sociales)라는 연구 계획

- 1997년

-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문화인 및 예술인들의 모임인 제 1회 “도시문화의 만남”(Rencontres des cultures urbaines) 개최

- 1998년

- 일반 대중이 공공 문화 장소에서 정보 및 통신 기술을 통한 창작과 표현과 같은 문화 활동을 가능케 하는 멀티미디어에의 접근을 용이케 하는 공공 장소인 “멀티미디어 문화 광장”(Espaces culture multimédia) 프로그램 시작.

- 1999년

- 국가적 및 국제적인 문화망과 문화 파트너를 연결시키는 국가적인 문화 파트너 제도 시행

- 2002년

- 문화 활동이 희박한 농촌 및 도시 소외지역에 근접 미디어 도서관 설립을 위한 “벌통”(Ruches) 프로그램 시작

-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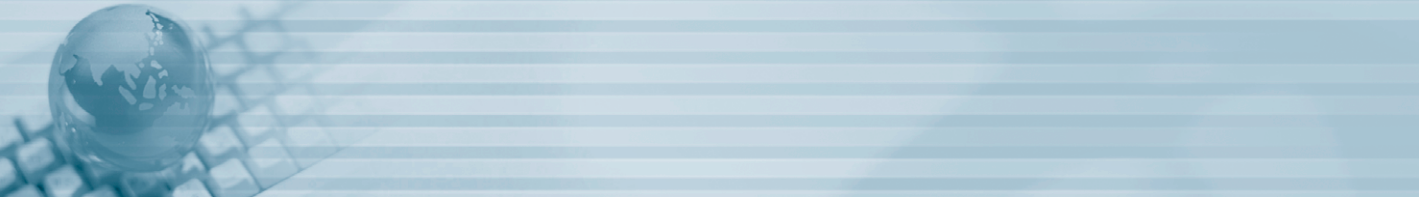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 “도시와 기억 - 도시개발 정책에 관한 자료”(villes et mémoire - les archives de la politique de la ville)일 주최
- 4개 도시(Venicieux, Strasbourg, Grenoble, Senart)의 도시계약의 문화부분에 관한 평가서 제출

III. 리용(Lyon)시의 도시계약에 포함된 문화개발 정책

리용시는 프랑스 중앙정부와 도시개발에 관한 도시계약을 체결한 247개 프랑스 지방도시 중의 하나로서 프랑스 제3의 대도시이다. 이런 도시계약에 바탕을 둔 리용시에 의해 주관되는 문화협력 프로그램은 리용시에 존재하는 문화 기관(협회, 사회 기관 및 문화 공연장 등)과 문화관련 종사자들로 하여금 문화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문화 활동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거주 지역의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용시가 발표한 문화개발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리용시는 모든 분야의 문화, 예술 분야에 자원과 능력을 갖춘 문화, 예술 인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구성 요소로는 :

- 문화정책을 실현하는 극단, 창작가, 음악가, 무용가, 연기인
- 다수의 공연장, 상영관, 극장, 전시장 및 제작소
- 모든 분야의 문화 및 예술 활동의 교육 및 창



작이 가능한 하부 구조

- 공공교육에서 파생되어 거주 지역에서 직접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문화 지원 제도.
- 풍부한 연중 문화 행사 : 빛 축제, 음악 축제, 인형극 축제, 힙합에서 살사, 가스펠까지 어우르는 광범위한 내용의 대중예술축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문화 종사자들은 민간 지원금과 리용시 예산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 지원금의 도움을 받아 활동한다.

한편, 리용시는 곤란함을 발생하는 도시개발 계획에서 문화개발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개발에 필요한 각각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문화개발에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문화 및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공공 및 민간인 각자는 서로의 본질성, 활동 방법 및 임무를 존중하며, 각 분야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사회 계층 단결을 위한 도시화 계약에 관한 리용시의 문화정책은 문화개발을 위한 협력 시스템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로 문화

활동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 우선 순위를 갖는 지역
 -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주제별 문화 활동
 -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 또한 육체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불편한 주민
- 즉, 리용시의 문화 협력에 관한 헌장은 이런 원칙에 근거한 문화 활동 범주 내에서 관련 기관들이 문화개발에 관한 활동에 집중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정책의 평가 및 이행은 국토개발국과 연결된 지방문화국 내에 위치한 문화협력 임무 위원회가 보장한다.

강 흥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